

전통수의학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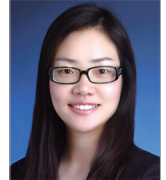
기氣·혈血·진액津液

강 무 속

동물제중원 금손이동물병원 원장

수의외과학 석사

camus22@hanmail.net



기, 혈, 진액이란 각기 다른 성질과 기능을 가진 세 가지 물질로써, 생명활동의 기본물질이다.

한의학 및 전통수의학에서 생리병리를 해석하고 진단과 치료에 응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중의 하나으로써, 기혈진액은 신진대사를 통해 만들어지고, 정상적인 신진대사를 유지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전통수의학의 생리병리를 이해하는데 있어 장부학설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실제 임상에서는 장부학설과 기혈진액의 개념이 결합된 형태로 응용되어지기에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기氣는 부단히 활동하는 매우 강한 활력을 지닌 물질로써, 에너지와 기능의 의미를 함유하고 있고, 혈血은 혈액을 말하며, 진액津液은 생명체 안의 모든 수분을 가리키는 말이다. 기혈진액이 각각 가지는 특성에 의하여 음陰과 양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강한 활력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기는 양에 속하고, 액체성 물질로 영양작용을 하는 혈과 진액은 음에 속한다.

1. 기氣

1.1 기의 개념

최초, 기는 우주의 변화는 물론 생명활동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자연계 모든 사물과 현상의 변화는 기에 의해 일어난다고 인식하였고, 생명현상도 역시 기의 운동과 변화로 유지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기는 형체가 없어 직접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각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근거하여 그 실체를 인식하게 되었다.

일상생활에서 전기電氣와 자기磁氣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전기와 자기도 눈으로 직접 보는 것보다 전기적인 현상이나 자기적인 현상을 통해서 그 실체를 인식하는 것처럼, 기에 대한 개념도 그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좀 더 편할 것 같다.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근원으로써의 '기'라는 개념은 의학의 발전에 따라 물질적, 기능적, 에너지적, 정서적 의미를 지니는 개념으로 다양성을 띠게 되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생성, 위장의 연동운동, 근육운동을 통한 체온상승, 흥분에 의한 심박동의 변화 등이 모두 기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2 기의 생성

기 생성의 원료는 세 가지인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적인 정기精氣, 음식물, 자연의 공기이다. 그래서 기의 생성에는 오장육부가 모두 관여하지만,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기는 선천적인 기운을 담고 있는 신腎, 소화기능을 담당하는 비脾, 호흡을 주관하는 폐肺이다. 이 세 장기가 정상적이면 기의 생성도 정상적이겠지만, 반대로 이 장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의 생성에도 이상이 생기게 된다.

1.3 기의 분류

이렇게 생성된 기는 각 장기에 이르러서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간에서는 간기, 심에서는 심기, 폐에서는 폐기 등으로 불리면서 각각의 고유 생리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해부학에서 혈관을 동맥, 정맥, 모세혈관으로 나누고, 위치에 따라 뇌동맥, 문정맥, 복대동맥, 관상동맥, 하지 정맥 등등의 이름이 있듯이, 기도 역시 분류에 따라, 또는 기능을 발휘하는 곳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이와 별도로 원기元氣, 종기宗氣, 위기衛氣, 영기營氣 등의 이름을 가진 기도 있다.

1.4 기의 작용과 운동방식

다양한 기능을 나타내는 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작용에는 추동推動작용, 온후溫煦작용, 방어防禦작용, 고섭固攝작용,

기화氣化작용이 있다. 추동작용이란, 장부와 경락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혈액과 체액의 순환시키는 것으로, 추동작용이 저하되면, 장부와 경락의 기능도 쇠퇴하고 혈액과 체액의 순환에도 이상을 초래하여 순환정체가 나타나게 된다.

온후작용이란, 열을 발생시키고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상 체온의 유지는 원활한 신진대사의 기본 조건이 되기도 한다. 만약 온후작용에 이상이 생기면 추위를 타거나 혈액순환이 정체되며, 신진대사가 느려지며, 심하면 저체온증과 같은 상황을 야기하기도 한다.

방어작용이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건강에 불리한 요소들, 특히 기후와 관련된 병리요소들을 막아내는 작용을 말한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찬바람에 노출되었을 때, 방어작용이 제 기능을 못한다면 비염, 감기 등의 질환에 걸리게 된다. 현대에 와서는 이 방어작용을 일정부분 면역과 관련지어 해석하기도 한다.

고섭작용의 고섭이란 제어와 통제, 관리의 의미이다. 체내 순환중인 물질 등에 대하여 통제 관리하는 기능으로, 주로 혈액과 진액의 유실을 방지한다. 고섭작용이 약해지면 출혈이나 과도한 땀의 배출이 생겨날 수 있으며, 장기의 위치 조절기능도 약화되어 위가 처지는 위하수나 탈항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기화작용은 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기의 운동변화를 말한다. 체내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생성, 변화는 모두가 기화작용에 의한 결과물인 것이다. 음식물의 소화흡수, 혈액의 생성, 체액의 생성과 배출 등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다양한 작용을 하는 기의 운동을 기기氣機라고 하는데, 기의 운동형태는 다양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승강출입升降出入’ 4가지 방식을 기본으로 삼는다. 장부와 경락 등 조직기관은 모두 기의 승강출입 운동에 의하여 생리기능을 나타내게 되므로, 기의 승강출입에 이상이 생기면, 기능이상을 초래하여 질병을 야기하게 된다.

승강升降은 물질이동과 기능활동의 상승과 하강을 말하며, 출입出入은 물질의 교환이나 기능활동의 방향성을 말한다.

음식물의 소화흡수과정에서 영양분을 안쪽으로 흡수하여 위쪽(전신)으로 보내는 것을 승이라고 하고, 소화흡수되고 남은 찌꺼기를 아래쪽으로 내려보내는 것을 강이라고 한다. 폐의 호흡기능에서 들숨은 입수이고, 날숨은 출수이며, 산소를 받아들이는 것을 입수이라고 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출수이라고 한다.

2. 혈액

2.1 혈액의 개념

혈은 영양물질을 함유한 붉은색 액체로, 기의 추동작용에 의지하여 전신을 순환하면서 영양작용을 발휘하게 된다.

2.2 혈액의 생성

혈의 생성원료를 수곡정미水穀精微라고 하는데, 수곡水穀은 음식을 말하고, 정미精微는 영양소로써 가장 순수하거나 기본적인 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수곡정미는 음식물이 소화된 후에 얻어지는 엑기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소화흡수를 통해 얻어진 수곡정미는 기의 작용을 받아 혈관 안으로 들어가면서 혈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2.3 혈액의 작용

혈의 작용은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다. 혈은 기의 추동작용을 받아 전신 조직기관을 순환하면서 영양공급을 하여 생명체가 정상적인 생리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혈액이 충분하여 영양작용이 발휘되면 모발이 윤택하고 뼈와 근육이 튼튼하며, 장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또한 운동기능과 감각기능도 정상적으로 수행되는데, 만약 부족하게 되면 팔다리가 마비되고 힘이 없어지며 혹은 근육경련 등도 나타나게 된다.

전통수의학에서 인식하고 있는 혈액의 생리기능중에서 독특한 것은 정신활동의 정상 유무도 혈액의 도움이 크다는 것이다. 혈액이 충분하고 순환이 원활하면 반응속도나 정신상태도 정상이고, 혈액이 부족하면 수면장애가 나타나거나 꿈이 많아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혈액에 열이 있는 혈액熱의 상태가 되면 피부발적, 출혈, 발열의 상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

혈의 대표적인 병태로는 혈액虛, 혈액瘀, 혈액熱, 출혈出血이 있다.

혈虛는 혈액부족이나 혈액의 영양작용 장애로 인한 병리상태를 의미하고, 혈액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활발하게 소통되지 못하거나 심하면 혈액이 정체되고 멍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병리상태를 이야기할 때 많이 거론되는 어혈瘀血은 정체되어 있는 혈액을 말하고 혈액瘀는 혈액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혈熱은 혈액에 열이 있거나 혈액순환의 속도가 병리적으로 증가된 상태를 말하고, 출혈은 말 그대로 다양한 출혈증상을 말한다.

3. 진액津液

3.1 진액의 개념

진액은 몸안의 모든 정상적인 수분을 말한다. 체액과 위액, 장액, 관절낭액, 눈물, 콧물, 침, 땀 등을 포함하는 정상적인 분비물을 모두 포함해서 진액이라고 하는데, 혈액을 제외한 모든 액체성 물질을 말한다. 진액은 수분이외에도 많은 양의 영양물질과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골수, 척수액, 뇌수액 등이다. 진액 또한 혈과 마찬가지로 전신에 대한 영양작용을 가지게 된다. 혈관 내의 액체성 물질은 혈이라 하고, 혈관 밖의 모든 액체성 물질은 진액이라고 보면 된다.

3.2 진액의 생성과 배출

진액의 생성도 역시 소화기관에서 흡수한 수분과 영양물질인 수곡정미를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다. 진액은 전신 조직과 기관에서 사용되어지고 자체적인 순환과정을 거치고 나서 필요 없는 것은 체외로 배출되게 되는데, 피부의 땀구멍을 통해서 배출되거나 방광에 모여 배출되게 된다.

3.3 진액의 작용

진액은 액체성 물질이므로 여러 조직 기관을 윤택하게 하는 작용을 하며, 많은 영양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영양작용을 하게 된다.

진액의 병태로는 크게 진액부족, 진액정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진액이 부족해지면 건조하고 거칠어지며, 윤기가 없어지거나 땀이나 소변량이 줄어들게 된다. 안구건조나 피부건조가 대표적인 증상이다.

진액정체의 대표적인 병태는 흉수, 복수, 뇌척수액의 정체 등이 있다.

4. 기혈진액의 관계

실제 임상에서는 각각의 기, 혈, 진액이 가지는 생리병리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시 되는 부분이 기혈진액 세 가지 물질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이다.

기와 혈, 또는 기와 진액, 혈과 진액의 관계를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기와 혈은 상호의존적면서 상호 이용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관계를 “기능생혈氣能生血”, “기능행혈氣能行血”, “기능섭혈氣能攝血”, “혈위기지모血爲氣之母” 이 네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기능생혈氣能生血이란, 기는 혈을 생성한다라는 의미이다. 혈액은 혈장과 혈구세포로 이루어져있고, 혈장과 혈구세포도 장기의 기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러한 기능을 기의 작용이라 보기 때문에 기가 혈을 생성한다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전통수의학에서는 혈 부족의 상태가 나타나게 되면 혈만 보충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와 혈을 동시에 보충해주는 방법이 많이 쓰게 된다.

기능행혈氣能行血이란, 기가 혈액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의미로, 기의 추동작용에 의한 혈액순환을 가리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정상적인 혈액순환은 심기의 추동작용과 폐기의 분산작용 및 간기의 소설疎泄(=소통)작용에 의지하게 되는데, 만약 기가 부족하게 되면 순환시키는 추동작용도 저하되면서 자연스럽게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어혈도 생기게 된다.

기능섭혈氣能攝血에서 섭攝의 의미는 통제, 관리의 의미가 있다. 기는 혈이 혈관 안에서만 움직이고, 혈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관리통제하는 작용을 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다양한 출혈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혈위기지모血爲氣之母를 직역하면 ‘혈은 기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해석하는데, 이것은 기의 기능에 있어서 혈의 중요성을 나타낸 것이다. 기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형체가 있는 물질에 의탁하여 움직이면서 여러 장소에서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여러 장소에 이를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혈이기 때문에, 아이를 업고 다니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여 혈위기지모血爲氣之母라고 한 것이다.

혈위기지모는 두가지 의미가 있는데 혈이 기를 실어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과 기의 기능은 혈의 영양에 의지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혈이 부족하면 기순환도 느려지고 기의 기능도 저하되게 된다.

기와 진액의 관계도 위와 비슷하여 기능생진氣能生津, 기능행진氣能行津, 기능섭진氣能攝津, 진능재기津能載氣(진액은 기를 싣고 다닐 수 있다)라고 한다.

기혈진액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하나하나의 생리와 병리를 들어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혈진액의 개념을 음양, 장부, 경락과 연결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인식하여야 실제 임상에서 대면하게되는 다양한 병태를 해석하고 치료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